

제4장

금융투자의 이해



목차

1. 투자의 기초

2. 주식 투자

3. 채권 투자

4. 증권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투자 수익률과 위험(risk) 등 투자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고, 금융투자상품 매매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상품인 주식과 채권의 거래방법 및 투자 가치분석방법을 정리해 본다.

- 투자의 수익과 위험의 개념을 이해한다.
-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레버리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식과 채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비트코인, 경제혁명인가 투기광풍인가

비이성적 과열이 버블(거품)을 만들고 절정에 이르면 버블이 터지면서 공황을 맞는다. 시대에 따라 투기대상만 바뀔 뿐 되풀이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역사다. 작금 논란 속의 '21세기판 톨립' 후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대표하는 가상화폐다. 지금 결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가격 폭락의 우려와 성장 지속의 기대가 팽팽하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톨립 버블보다 비트코인 버블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은 결국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린 부테린도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 열풍을 '버블'로 규정했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이 넘실대는 투기장으로, 거품이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짙은 게 사실이다. 가상화폐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가격 급등에 현혹돼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허다하다. '묻지 마' 투자행렬은 버블의 징조다. 버블은 마냥 지속할 수 없다. 언젠가는 꺼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9일 언론 기고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할 것(the price of Bitcoin will collapse)이라는 게 내 최선의 추론(best guess)"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버블 붕괴 뒤 한낱 곳으로 돌아간 톨립의 운명을 따를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위험한 것은 언제 다시 폭락할지 모를 가격이지 가상화폐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톨립과는 다르다. 확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차 국장도 "기존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는 분명히 늘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버블'이라고 지적인 로고프 교수도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번성하겠지만..."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가상화폐의 확장성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서 나온다. 블록체인이라는 혁신기술 덕분에 가상화폐는 중앙의 권위, 제3자 보증 없이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사용자간(P2P)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은 여기서 나온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그 쓰임새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비탈린 부테린은 가상화폐 버블론을 퍼면서도 "이더리움은 단지 화폐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 유희유"라며 "가상화폐가 은행을 대체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투자의 가치와 사회적 관점에서의 투자의 가치는 다른가?



1

투자의 기초

■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

투기

요행을 바라고 비교적 단기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
개인과 가계의 재정에 커다란 위험을 불러올 수 있음
경제활동을 위한 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방해하거나 가격거품을 형성

■ 네덜란드 튜립 구근(뿌리) 투기 (1636년~1637년)



- 1593년 네덜란드에 들여옴
- 모자이크 바이러스
- 쉘페르 아우구스투스(Semper Augustus)
(6,000플로린, 1635년)
- 귀족, 시민, 농민, 선박공, 하녀까지 투자

1.2 투자 수익률

$$\text{수익률} = \frac{\text{매도금액} - \text{매입금액} \pm \text{보유기간 중 현금흐름}}{\text{매입금액}} \times 100$$

- 3개월 전에 10,000원에 매입한 주식을 오늘 10,900원에 매도하고
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2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수익률은 투자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비교가 불가능
→ 연율화 (1년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표시)

1.2 투자 수익률

- 3개월 동안 11%의 수익률을 연율화하면? 정답: 44% **X**

1년이 3개월의 4배 이므로 보통은 11%의 4배인 44%를 연율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복리를 무시한 계산 방법



매 3개월마다 11%의 수익률로 계속



연율화 과정에서는 **재투자를 가정한**
복리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

■ 수익률 계산시 고려 사항

명시적 비용

- 거래비용

증권수수료, 중개수수료, 운용보수 등

→ 장기투자가 유리함

- 세금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 구분

암묵적 비용

- 기회비용

: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의 가치

- 정보비용

: 투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

→ (대안) 간접투자 이용

1.3 투자의 위험(risk)

■ 리스크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상황 외에
긍정적 가능성도 내포

High Risk High Return

기대수익률 = 무위험 수익률 + 리스크 프리미엄

1.3 투자의 위험(risk)

$$\text{기대 수익률} = \text{무위험 수익률} + \text{리스크 프리미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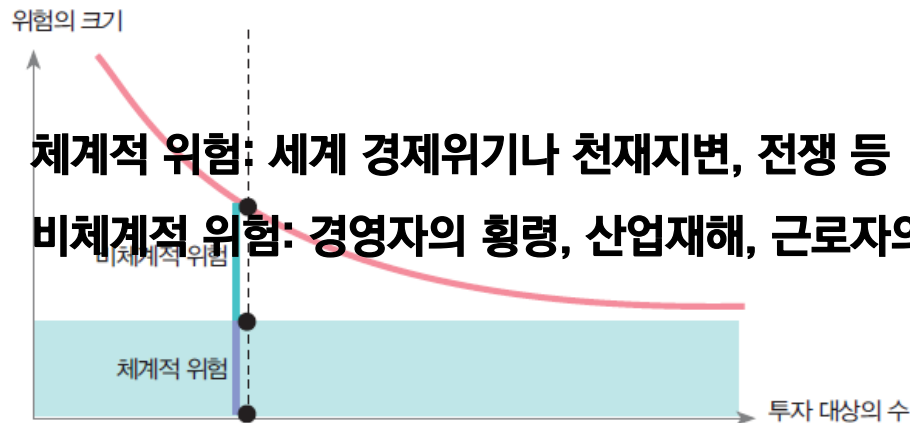
- 무위험 수익률: 보통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수익률
-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증가하는 부분

리스크 ↑ → 리스크 프리미엄 ↑ → 기대수익률 ↑



1.3 투자의 위험(risk)

- 대표적인 투자위험 관리방법: 분산투자
 -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하여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
- ⇒ 분산투자를 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음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1.3 투자의 위험(risk)

-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효과와 투자위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투자위험을 늘리는 전략
=> 투자액의 일부를 자신의 자본이 아닌 **부채로 조달**

$$\text{투자 레버리지(배)} = \frac{\text{총 투자액}}{\text{자기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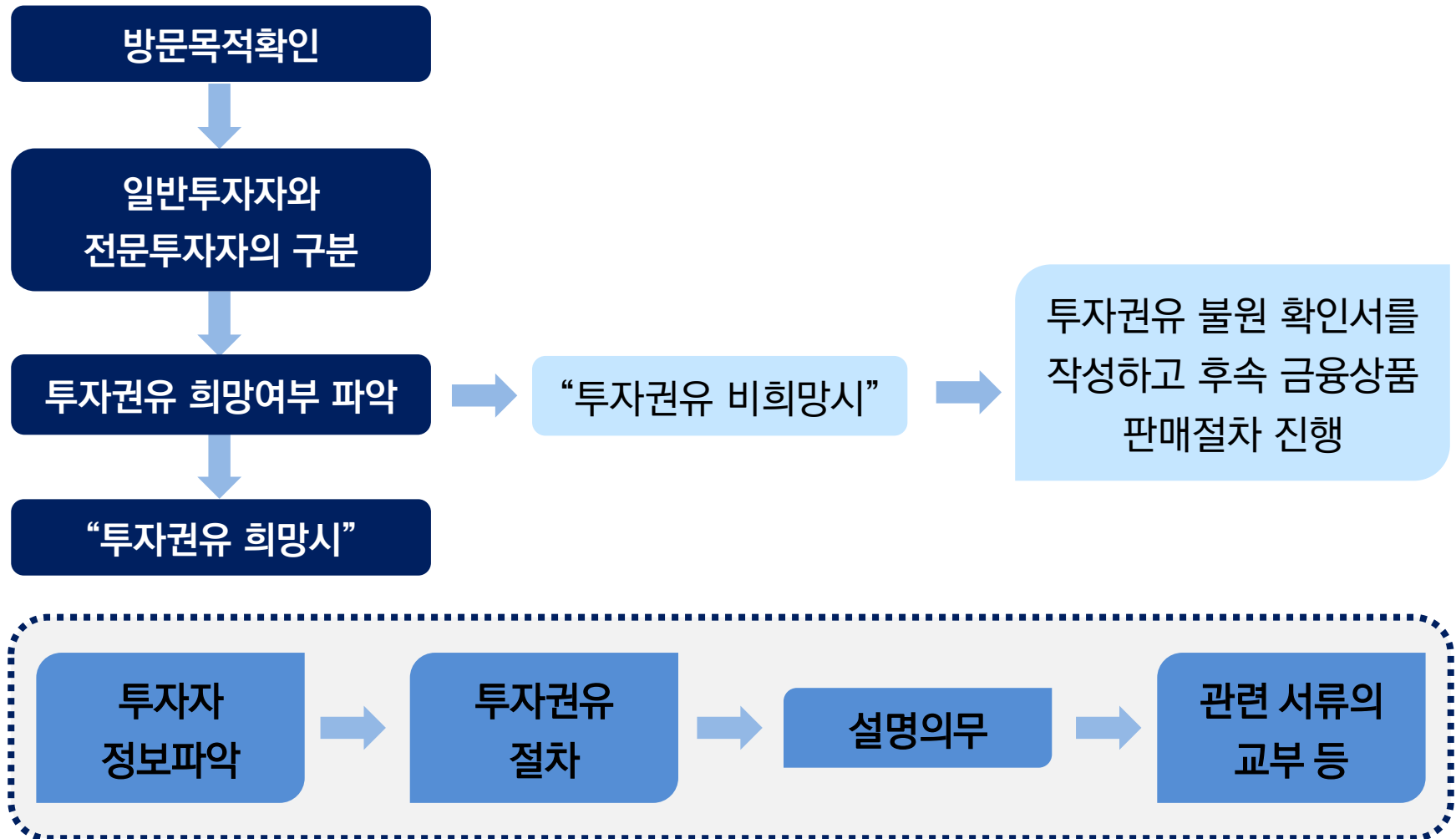
➡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실제 투자자산의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로 투자수익률의 변동성이 증가=> 리스크 ↑

-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는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5억원인 아파트를 4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1억원으로 매입하는 경우,
투자 레버리지는 5배(=5억원/1억원)

**실제 주택의 가치보다 부채인 전셋값이
더 높은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1.4 금융투자상품 투자과정





증권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에 대한 과다 일임매매 손해배상책임

- 1998년 12월 8일 A씨는 OO증권사의 지점에 위탁 계좌를 개설한 후 1999년 4월 29일까지는 본인이 직접 매매거래를 하였고, 4월 30일에 남편과 함께 OO증권사의 지점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남편과 협의하여 매매해 달라고 하였으며, 남편은 직원에게 알아서 매매해 달라고 함.
- 1999년 4월 30일부터 2000년 3월 21일 의 기간 중 A씨의 남편은 당해 지점에 상주하다시피 하였고, 동 기간 중 14,073,002원의 투자손실을 보았으며, 2000년 3월 22일 A씨가 OO증권사의 지점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이날부터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함.
- 이후 2000년 6월 16일 A씨는 1999년 4월 30일부터 2000년 3월 21일 기간 중의 매매에 대하여 OO증권사에게 이의제기를 함.

이에 A씨는 손해 금액에 14,073,002원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청함



증권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고객에 대한 과다 일임매매 손해배상책임

위원회의 판단

-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 계좌의 거래가 과다한 일임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해당할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범위라 할 것임.
- 신청인(A씨)의 남편은 증권투자경험이 전혀 없어 직원의 매매 형태를 제대로 이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 또한 이러한 점을 알고 매매거래를 빈번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며, 매매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직원은 신청인의 위임 본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일임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의 남편이 직원에게 매매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고, 피신청인의 지점에서 1년 가까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도 직원의 매매를 제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매매거래내역을 통지 받은 후 충분하게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직원이 매매거래를 계속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손해금액이 확대되었는 바, 신청인에게는 자기재산 관리소홀에 따른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그 과실비율을 70%로 하여 손해금액(4,221,900원)을 책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됨.

(2002.12.3. 조정번호 제2002-47호)



2

주식 투자

2.1 주식의 개념

■ 주식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

보통주

- 자익권
 - 이익배당청구권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 신주인수권 등
- 공익권
 - 주주총회의결권
 -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 이사해임요구권
 -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우선주

-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
-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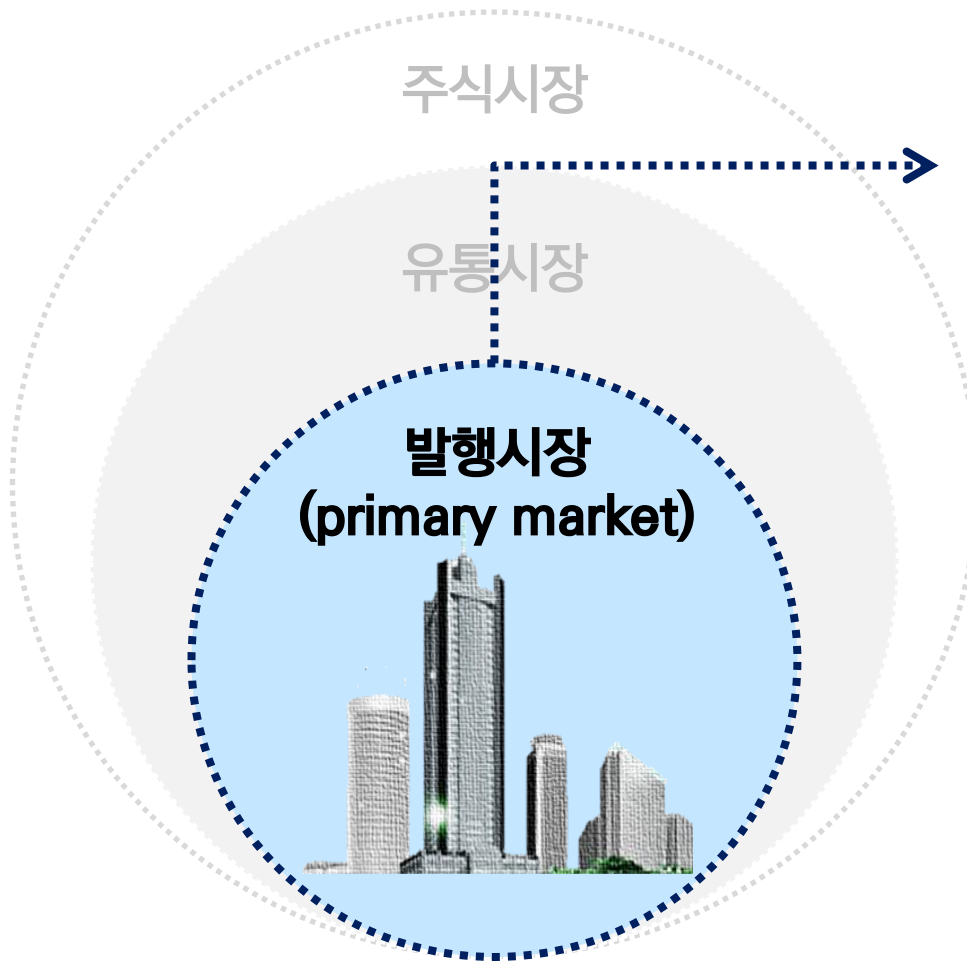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함”



2.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2.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

- 직접발행
- 간접발행

2.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투자자간 발행된 주식을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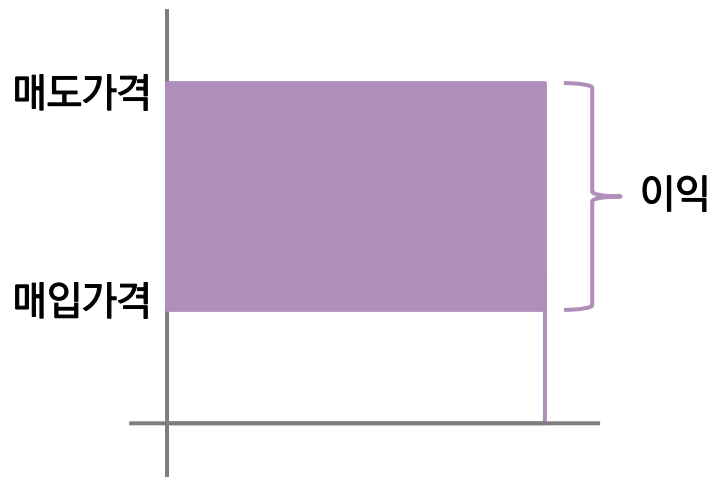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
- 코넥스
- 프리보드

2.2 주식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주식투자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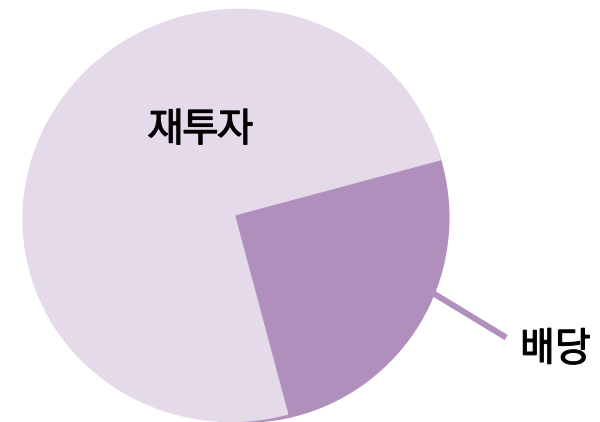
자본이득

- 매매차익으로 주식의 가격이 변동하여 발생하는 차익



배당금

-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돈



대형주

- 시가총액이 큰 주식 (*시가총액: 현재 주식의 가격 X 주식의 수)
- 시가총액 순서로 1~100위 기업의 주식
- 대기업의 주식일 확률이 높고 거래규모가 크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 가능

중소형주

-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
- 기업규모가 작고, 경제나 경기변동에 따라 가격의 등락 폭이 큰 경우가 많음
- 투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의 기회도 큰 경향이 있음

가치주

- 현재 주식의 가격이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
- 여러 기업의 공시자료를 통해 가치주 여부 판단

배당주

- 기업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투자하기 보다는 주주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하는 비율이 높은 주식
- 주식의 매매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선호

2.3 주식 거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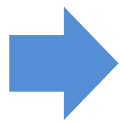
① 단계: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 (신분증 등 필요)

② 단계: 개설계좌를 이용해 주문

영업점 방문, HTS 또는 MTS 이용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는
HTS(home trading system) 보편화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거래할 수 있는
MTS(mobile trading system)의 보급이 점차 확대



2.3 주식 거래 방법

■ 매매체결방법

온라인주식거래화면

체결방식	시간
정규매매시간	09:00-15:30
장전시간외	07:30-08:30
시간외종가	15:30-16:00
장후시간외단일가	16:00-18:00



- 주문가격 - 지정가 주문: 원하는 매수·매도가격을 지정하여 주문
 - 시장가 주문: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주문시점에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체결
- 체결원칙 - 가격우선원칙: 매수(매도)주문의 경우 높은(낮은) 가격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
 - 시간우선원칙: 동일한 가격의 주문간에는 먼저 접수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

*1주 단위로 주문, 결제시점은 매매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2.3 주식 거래 방법

Q. 다음의 서술이 맞는지 판단하시오.

1번 문제

뭐해? **X**

⇒ Price limit 제도
: 주식가격은 전일 종가
의 $\pm 30\%$ 이내에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2번 문제

O 헐 대박~

- ⇒ 주식과 세금
- 매매차익: 과세대상 아님
 - 배당금: 과세
 - 분리과세 15.4%
 - 종합소득세(2,000만 원 초과분)
 - 세금
 - 코스피(주식거래세 0.1%
+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주식거래세 0.25%)



3

채권 투자

3.1 채권의 개념

■ 채권이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춘 기업이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다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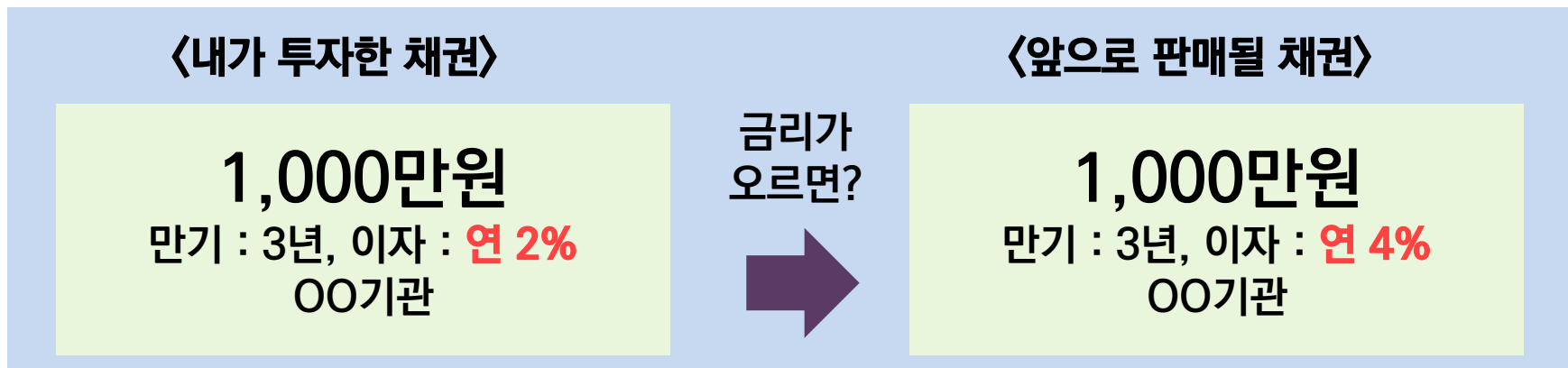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인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표시된 액면가를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

Q. 채권의 가치는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바뀔까?



〈직관적 이해〉



〈수식적 이해〉

$$\text{채권가격} = \frac{c}{(1+y)^1} + \frac{c}{(1+y)^2} + \frac{c}{(1+y)^3} \cdots + \frac{M}{(1+y)^n}$$

c : 매 기간 이자지급액
n : 채권의 만기
y : 채권의 시장이자율
M : 채권의 액면가

■ 채권투자의 이익

수익성

- 이자소득: 발행 시에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는 것
- 자본소득: 채권의 유통가격이 변동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세차익 또는 차손

안전성

- 정부, 공공단체, 금융회사 및 주식회사 등에 의해 발행
- 발행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등에 의해 정보공개가 이루어져 비교적 안정성이 높음

유동성

- 채권은 어음, 수표와는 달리 채권유통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어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고, 주식과 달리 당일 결제 처리로 매도 당일에 출금 가능

■ 채권투자의 위험

① 가격변동위험

- 채권가격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위험이 존재

② 채무불이행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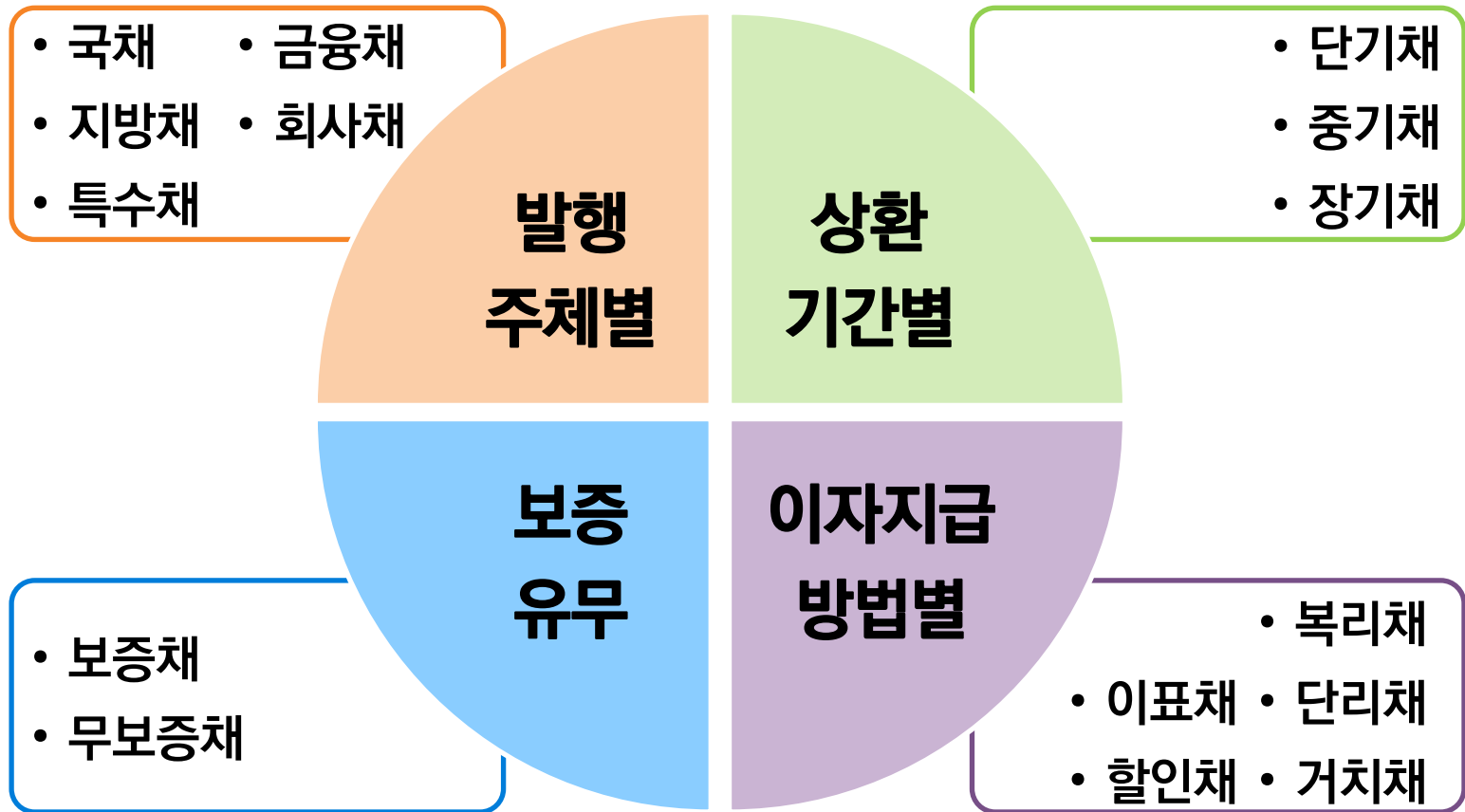
- 발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발생

③ 유동성위험

- 채권의 발행불량이 적고 유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유동성 위험이 존재

3.1 채권의 개념

■ 채권의 분류



3.1 채권의 개념



일반인보다 **전문투자자들이 주로 거래**

-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
- 발행시장: 국가 등 발행자가 처음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

■ 첨가소화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채권

- 국민주택채권,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 있음

국민의 채권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액국공채거래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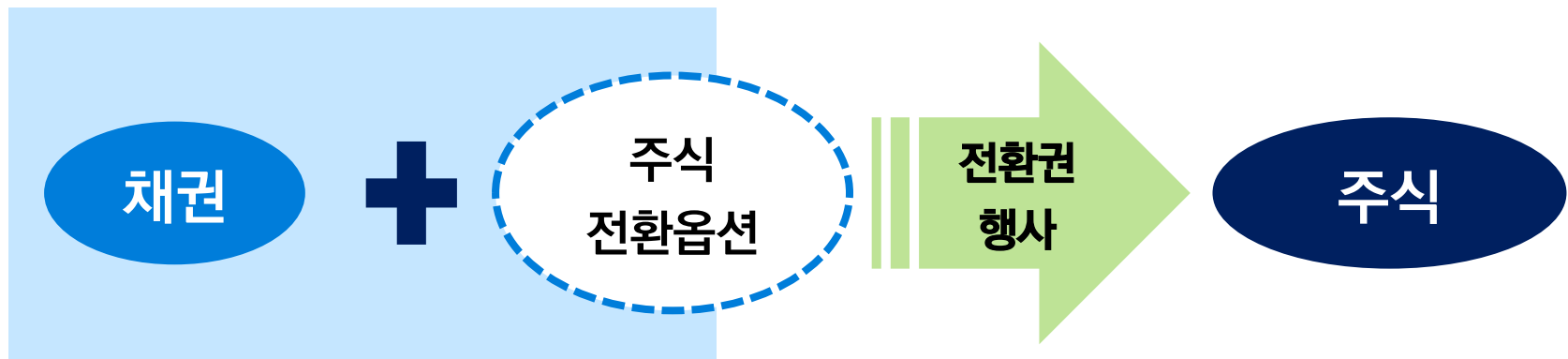
*소액채권 정보제공 사이트: 금융투자협회 본드몰 (www.bondmall.or.kr)

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 순수한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 후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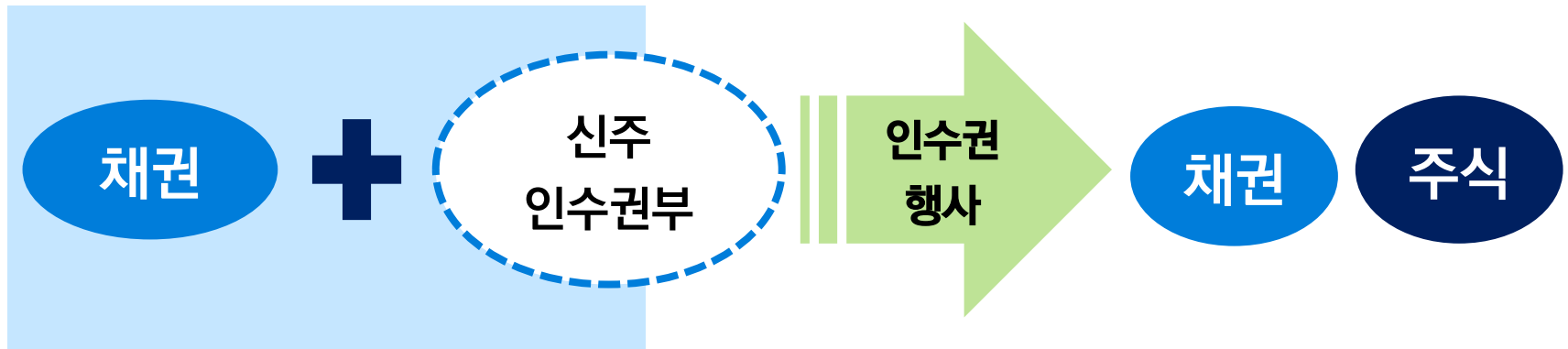
→ 보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전환권을 행사



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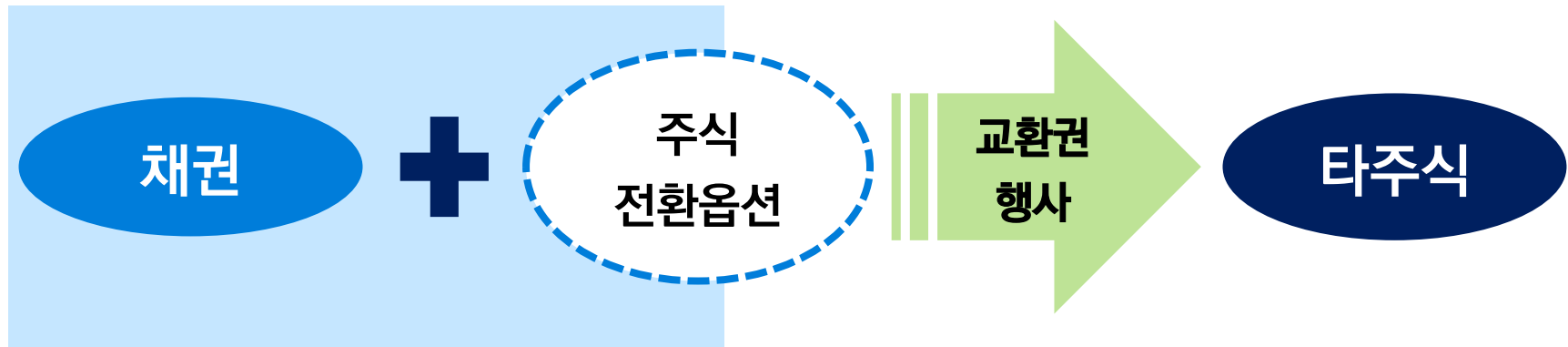
채권자에게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일정 수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사채



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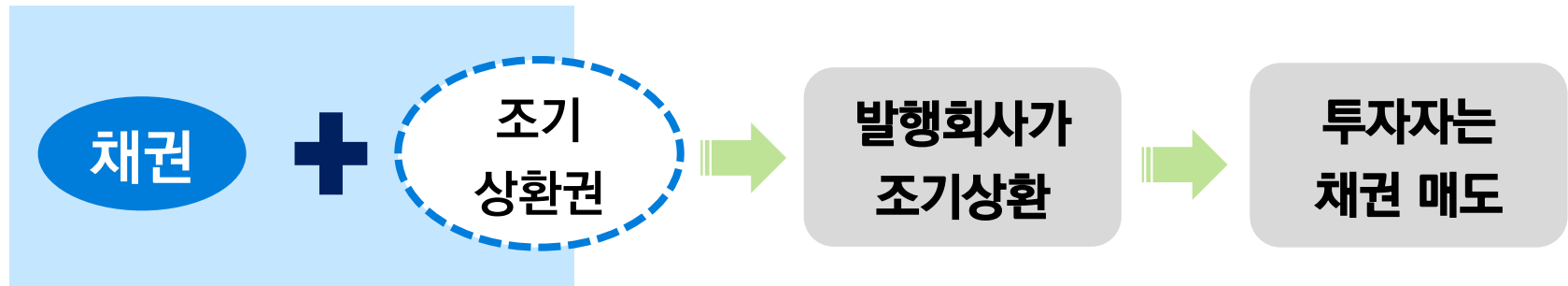
회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발행회사가 보유중인 **다른 주식으로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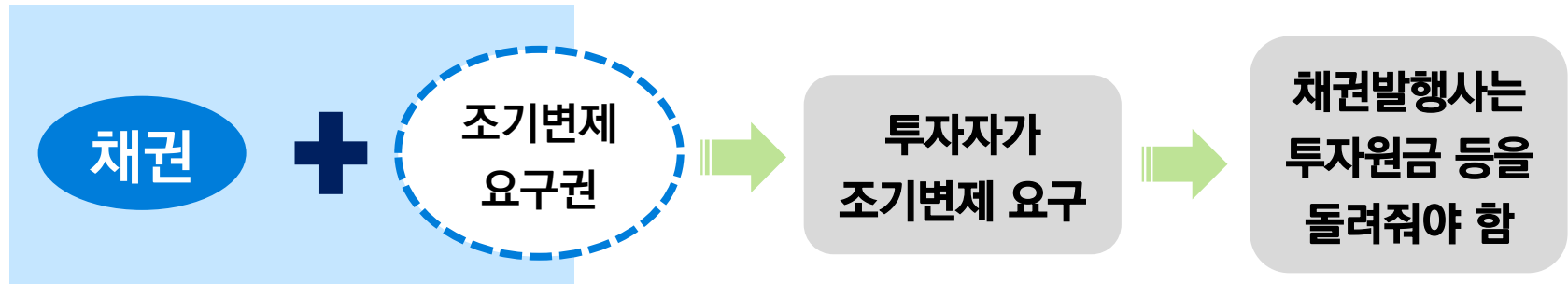
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 옵션부사채

- 조기상환권부채권(callable bond)



- 조기변제요구권부채권(puttable bond)



3.3 특수한 형태의 채권

-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

지급이자율이 시장금리 등에 연동하여 **매 이자지급 기간마다**
재조정되는 채권

$$\text{지급이자율} = \text{기준금리} + \text{가산금리}$$

실세금리 사용
(LIBOR,
KORIBOR 등)

신용도와
발행시장 상황
반영



4

증권분석

4.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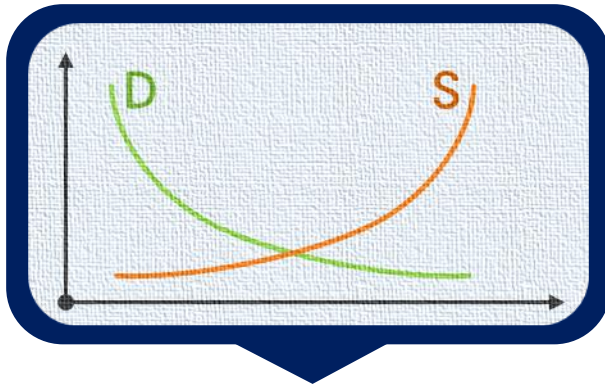


증권분석 (Security analysis)

개별증권의 투자 관련한 일체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4.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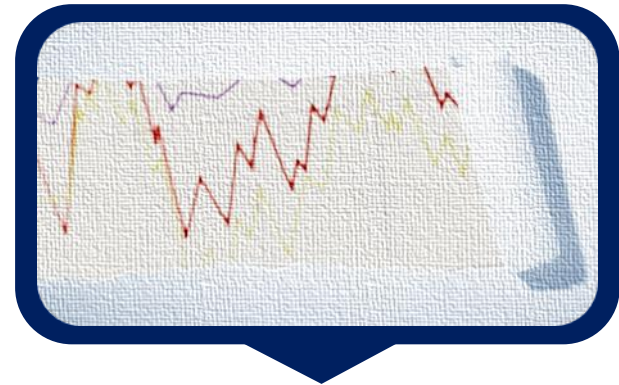


시장가격 (Market Price)

과소평가



과대평가



내재가치 (Intrinsic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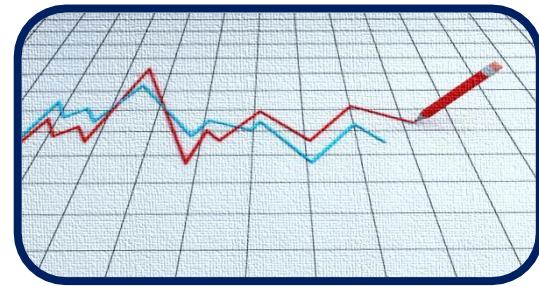
- 증권이 내재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분석
 - 환경적 분석 (경제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 재무적 분석 (재무제표 중심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평가)

4.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과거 증권가격 움직임의 양상이
미래에도 반복된다고 가정



증권가격 패턴은 이성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이성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

- 역사적 정보(과거 증권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패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가격의 움직임을 예측
- 주로 과거 주가흐름을 보여주는 주가 차트(chart)를 분석하여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 이용

- 개별 증권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 기업에 대한 정보

기업공시정보

-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투자정보
- 공시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주가에 영향

경영실적 정보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반영

지배구조 및 경영권 구조

- 관계회사 및 자회사의 가치와 실적, M&A 등 기업의 경영권 정보

유형성 정보

- 갑자기 출현한 이슈, 루머 등
-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재무비율분석

- 재무비율: 주요 재무상태나 손익 현황 등 중요 정보를 분석하여 간결한 수치로 나타낸 것

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유동성지표: 유동비율, 당좌비율 등

활동성지표: 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

수익성지표: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 레버리지비율(Leverage measures)

기업이 자산 또는 자기자본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 지나치게 높으면: 부채가 너무 많아 재무리스크가 크다는 의미
- 지나치게 낮으면: 부채를 적절히 활용해 기업이익을 확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

$$\text{부채비율(\%)} = \frac{\text{총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 유동성지표(liquidity measures)

기업이 단기부채를 충분하게 상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 지나치게 높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을 현금자산으로 운용한다는 의미
- 지나치게 낮으면: 부족한 유동성으로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text{당좌비율(\%)} = \frac{\text{유동자산-재고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 활동성지표(activity measures)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이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지나치게 낮으면: 자산을 활용해 충분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text{자산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text{평균회수기간} = \frac{\text{매출채권} \times 365\text{일}}{\text{매출액}}$$

$$\text{재고자산회전율(회)}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 수익성지표(earnings measures)

기업이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재무비율지표로 평가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text{총자산이익률(ROA) (\%)} = \frac{\text{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text{자기자본이익률(ROE)(\%)} = \frac{\text{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4.4 주가배수 평가

■ 기업가치와 주가를 비교해서 주식투자에 활용하는 방법

• 주가이익비율(PER)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주식 한 단위의 이익에 대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이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의미

•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당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장가격과 장부가치의 괴리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PE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이익(EPS)}}$$

$$PBR = \frac{\text{주가}}{\text{주당순자산(BPS)}} = \frac{\text{주당시장가격}}{\text{주당장부가치}}$$



5

마무리 퀴즈

위험관리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여러 위험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 □ □ □ 이다.

Quiz 1.

분산투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표준투자권유준칙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위험성향 등을 파악한 후 금융투자상품
을 권유하도록 하고 있다.**

Quiz 2.

0

**주식은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Quiz 3.



X

비교적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기업 등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는 채권이다.

□ 실제 투자 사례

회사 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A기업에 3천만원을 투자한 직장인 윤00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기업이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되면서 윤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됨

윤씨는 “A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 상태는 양호한지 등 기초적인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음

자영업자 김00씨는 평소 활동중인 인터넷 주식동호회 카페에서 비상장회사인 B기업의 광고를 보게 됨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에 투자하면 상장 후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광고만 믿고 5천만원을 투자한 김씨는 결국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됨

김씨는 광고가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있음

□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유의!
2.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
4.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5.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감사합니다

